

**패키지산업 성장에 힘입어 전망 밝아
소비자 눈높이 맞추고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 필요**

◎ 패키지 밀접, 고성장 기대되는 라벨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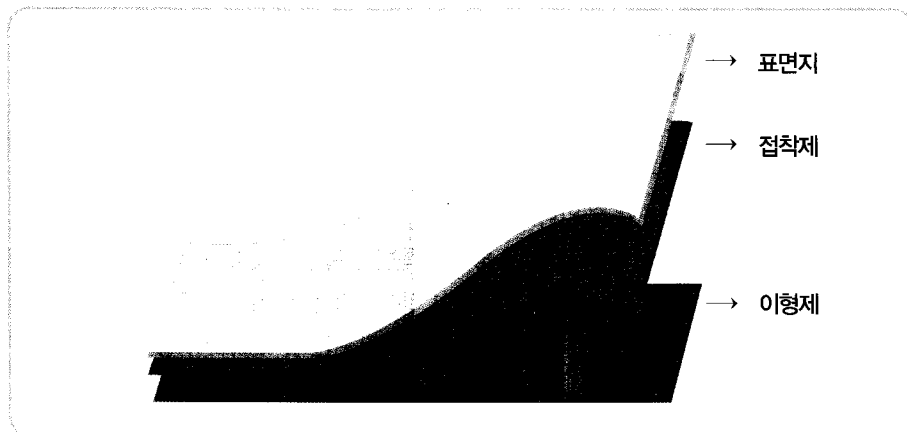
전통적인 시선에서 보면 라벨인쇄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라벨인쇄 시장의 규모는 출판인쇄나 상업인쇄에 비하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시장도 아니었다. 그러나 소비 수준의 발전과 IT기술의 대두로 인한 기술융합 등의 영향에 따라 영역파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라벨인쇄 부문의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쇄산업의 성장세가 정체 또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비해 라벨인쇄부문의 성장은 상대적인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라벨인쇄부문의 성장세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힘을 얻고 있는 분석 가운데 하나는 패키지 부문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일선 소비자 들의 소비 및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난 패키지 산업의 성장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라벨인쇄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쇄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동력을 라벨인쇄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인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 전통적인 인쇄 부문에 비하면 라벨인쇄는 그 규모를 견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라벨인쇄 부문을 이루고 있는 라벨 소재 부문과 라벨인쇄장비 부문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한다.

◎ 인쇄용 종이, 필름에 가공 없이 사용되는 점착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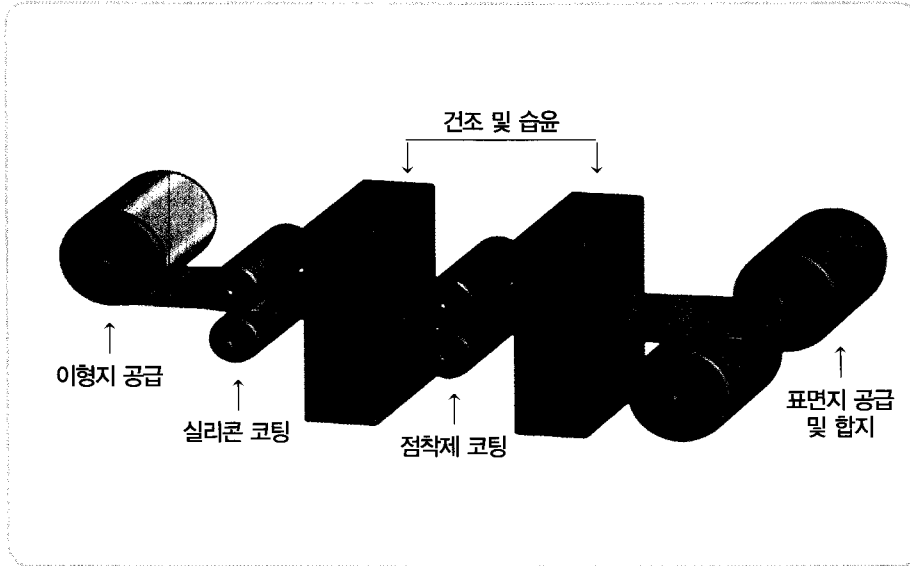
책이나 카탈로그, 패키지인쇄물 등에 흔히 사용되는 라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점착라벨(Pressure Sensitive Adhesive Label)이라고 한다. 점착라벨은 인쇄용 종이 또는 필름에 점착제가 미리 도포되어 있어 별도의 점착가공 없이 피착면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벨을 말한다. 분드와 같은 영구형 점착제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반고체상태의 물성을 유지하며, 부착 시에 손이나 롤러에 의한 약간의 압력을 요하기 때문에 감압라벨이라고도 한다.

<그림 1>



표면지 (종이 또는 필름) 필름의 경우 인쇄성을 높이기 위해 탑코팅/코로나 처리를 함
 점착제 (에멀전, 핫멜트 또는 솔벤트) 용도에 따라 영구형 또는 리무버블형을 사용
 이형지 (종이 또는 필름) 보통 박리가 용이하도록 실리콘 등으로 이형코팅 처리를 함

〈그림 2〉 점착라벨의 일반적인 생산 공정



◎ 점착라벨의 종류와 장점

점착라벨은 사용처에 따라 수많은 재질과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생산된다. 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면지 별로 구분한 점착라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상표라벨용 : 아트지, PE (폴리에틸렌), PP (폴리프로필렌), Fasclear (파스클리어) 등
- 바코드 인쇄용 : 감열지, 열전사(TT)지, PET (폴리에스테르) 등
- 의류용 : Transcode (트랜드코드) 등
- 사무용품, 우편용 : 모조지, 감열지, Laserpro 등
- 전기전자 및 내구성 적용: PET, PP, PI (폴리이미드) 등
- 건전지 적용 : 수축 PET, PVC (환경문제로 사용 감소 추세) 등

점착라벨은 직접인쇄, 인몰드, 수축슬리브 등 다양한 라벨링 기술들이 가진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그 활용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상자나 봉투, 튜브, 경질 또는 반경질 플라스틱 용기, 냉동 파우치 및 재봉합 용기, 투명 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포장용기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포장 시점에 라벨링을 하는 점착라벨 방식은 특별 판촉행사 및 한시제품 출시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제품이나 내용이 일부 변경될 때에도 기존 제품이나 인쇄물을 폐기할 필요없이 손쉽게 다른 디자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재고 관리 및 원재료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점착라벨은 갈수록 일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생산이 소량 다품종화 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의 효율성이 높은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점착라벨의 눈부신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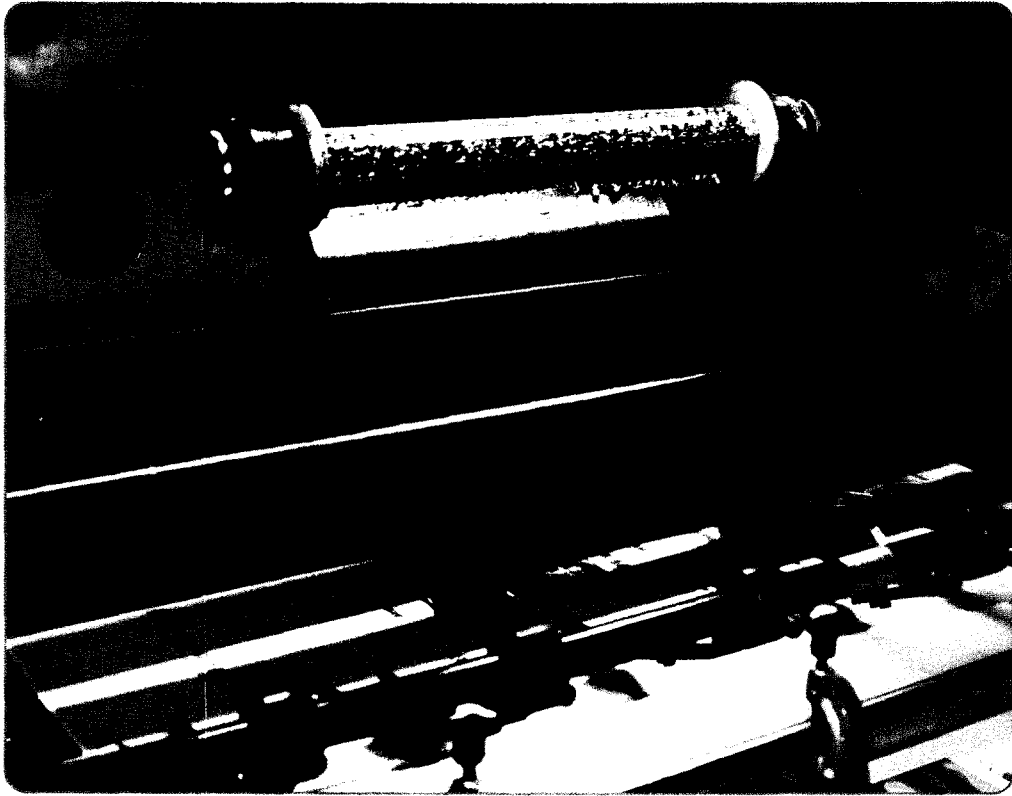
점착라벨은 이제 단순한 상품의 이름이나 정보를 표기하는 수단을 넘어서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기능성을 극대화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AC닐슨의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세계 최대 식품회사 중 하나인 KRAFT는 지난 2002년 32.5%였던 드레싱 시장 점유율이 2007년 들어 27.8%로 하락하면서 전면적인 패키징 변경을 단행하여 글루 방식으로 부착되던 기존의 종이라벨을 투명라벨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재료의 색감과 신선함이 고품질의 투명라벨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면서, 새로운 패키징을 적용한 리뉴얼 제품은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약 16%의 판매 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변화는 점착라벨의 소재도 변화되었지만 인쇄기술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패키지개발과 마케팅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라벨 솔루션을 고안하고 있다. 한번 개봉한 후에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재부착 포장 (Reclosure 또는 Resealable)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상용화 되어 현재 패키지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장용기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재부착 기술은 앞으로 패키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 마케팅과 친환경의 가치 커진 패키징과 라벨

라벨과 패키징은 더 이상 단순하게 내용물을 담고 표시하는 1차원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하고 다중 구조 라벨을 이용해 조리법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개봉 방지용 파괴라벨이나 캡을 이용하여 제품의 안전을 지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위조 약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복제 약품의 생산량이 연간 13%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점착라벨기술과 결합된 RFID 기술이다. 제품의 정보 및 이력을 조회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RFID 기술을 점착라벨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소비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맞물려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라벨 인쇄는 패키지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한편, 모든 분야와 비즈니스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친 환경성이라는 테마에 대해서도 패키지와 라벨산업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소재 및 후가 공 장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하루가 다르게 진지해 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보다 얇은 소재,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선호 하고 환경에 유해한 솔벤트 계열보다는 에멀전 계열의 점착라벨을 선택하는 회사들이 증가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옥수수, 대나무, 면화와 같이 자연복원이 빠른 소재나 생분해성 소 재를 이용한 친환경 라벨,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세스와 호환되는 수해리성 라벨 등이 속속 개발되어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고 있다.

◎ 라벨 산업의 세계적 동향

최근 수년 동안 라벨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적 전시회는 공통적으로 참가업체와 관람객수 의 증가세를 보이며 앞으로의 라벨 인쇄의 발전과 성장을 대변해 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의 라벨산업의 선진국가의 장비공급 업체들은 앞다투어 신기술로 개발된 장비를 개발, 런칭 했으며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엄청 나게 커져가는 중국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대하여 연구를 해왔다.

아시아국가, 한국, 중국, 일본도 앞으로 전자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제판기의 등장, 플렉소 잉크 및 코팅액의 개발, 고선수의 애니록스 롤 개발을 비롯한 오프셋 수준의 인쇄 품질이 구현되 고 있다. 소재 부문에서도 포장용지, PP, PE, 금박 및 스크린 인쇄 기능 등 다양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UV 코팅, 라미네이팅, 다이컷의 인라인 등도 발전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라벨인쇄는 사업다각화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업종간의 울타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인쇄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디지털화된 새로운 출력기술의 등장으로 인쇄방식의 구성은 극히 중요한 경쟁요건으로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정보매체로서의 새로운 수요는 인쇄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춰 개성화, 차별화의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다양화, 고급화와 더불어 다 품종소량인쇄 및 단납기나 즉납체제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생산량은 세계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미·유럽에 이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의 생산 감소는 불황의 영향이나 시장 성숙화와 함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부문의 산업처럼 거래처가 생산거점을 해외에 이전함에 따라 라벨의 발주가 감소하고 수주가 공동화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국내 시장에서는 인쇄사업의 진출이나 해외 태크 메이커의 상륙 등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 소재 부문 국내 라벨업계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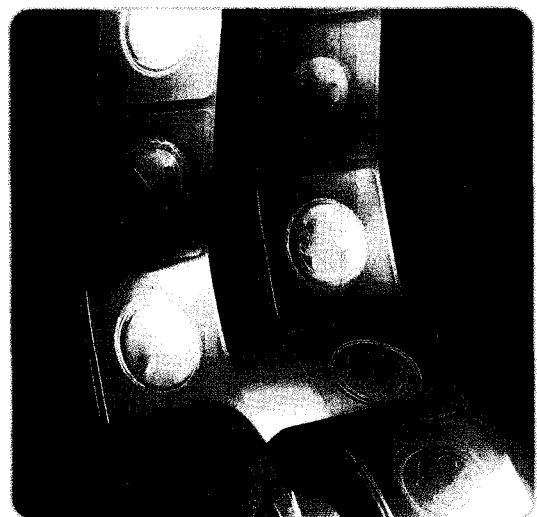
현재 국내 라벨 소재업계는 글로벌기업과 국내 기업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 에이버리데니스 코리아이다.

에이버리데니스: 지난해 창립 75년을 맞이한 점착라벨 부문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브랜딩 및 정보인식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지역에 본사를 둔 에이버리 데니스는 해마다 포춘지 500대 기업에 선정되어 왔으며, 현재 세계 60여개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6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에이버리 데니스의 점착라벨 사업부는 세계적 브랜드인 Fasson로 점착라벨, 코팅 페이퍼, 필름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들 제품군은 상표 라벨, 제품 식별, 바코드 및 라벨링 시스템 등의 용도로 라벨 제조업체와 소비재기업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홈페이지: www.averydennison.co.kr 주소: 서울시 중구 쌍림동 146-7 한림빌딩 14층

전화: 02-3406-6243 팩스: 02-3406-6210

한국폼텍: 프린터 출력용지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조, 유통하는 한국폼텍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Formtec'의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린터용 라벨 및 잉크젯 프린터 용지, 포토용지, 소프트웨어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플래닝 솔루션 제품과 개인관리를 위한 다양한 퍼스널 액세서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문구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한국폼텍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개최된 'Paperworld Frankfurt 2011'에 참가해 자사의 '폼텍 라벨' 제품군 및 테이프류, '이노웍스' 제품군 솔루션 브랜드 '웍스' 제품군을 선보였다.



▲ 에이버리데니스의 기능성 첨단 라벨

폼텍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최신 디자인과 문화 트렌드를 읽어내고 이를 제품에 반영해 고객과 폼텍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 www.formtec.co.kr 주소: 경기도 파주시 월통면 덕은리 682-4

전화: 1588-4952(고객센터) 팩스: 031-8071-4953

세림: 다양한 부문에 걸친 라벨을 생산하고 있는 세림은 고품질·저가격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에이버리에 대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70년 창립한 세림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1999년 3월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경기도 중소기업청), 2000년 7월 ISO9002/KSA 9302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2002년 8월 CSA 인증 획득 등 기술력 확보에 이어 2004년 Emulsion Coater 증설, 2006년 필름 전용 코터 증설(Clear on Clear)과 2007년 환경마크사용 인증 획득, 200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중소기업청)등 끊임없는 투자를 해왔다. 지난 2009년 1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및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saelim.comdlek 주소: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9-6

전화: 031-666-1551 팩스: 031-666-1536

◎ 라벨인쇄업계, 경쟁 격화로 채산성악화

라벨인쇄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라벨인쇄업계는 발주물량이 갈수록 줄고 채산성도 악화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채산성의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설비 및 인력투자도 위축되고 있으며 일부 인쇄사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몸집을 키우는데 성공한 대형 라벨인쇄사들은 투자를 확대해 시장 장악력을 더욱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벨업계 관계자들은 라벨산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업체수가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형 라벨 인쇄사를 중심으로 생산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며 전반적인 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라벨인쇄에도 디지털의 바람이 거세다.



▲ 라벨 인쇄 공정을 둘러보는 참관객들

이런 가운데 30여년간 라벨인쇄업에 몸담고 있는 대화특수인쇄공사(대표 김정전)과 몇몇 업체들의 행보는 앞으로 라벨인쇄업계가 나아갈 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977년 라이터용 라벨 인쇄물을 수주, 납품하면서 사업을 개시한 김정전 사장은 30여년 동안 라벨인쇄 분야만을 고집해 왔다. 고객이 원하면 어떠한 일이든 찾아서 납품 물량과 공급 기일을 맞춰 공급해 왔으며 오프셋 인쇄물을 원할 경우에는 외주를 통해서라도 물량과 납품 기일을 맞춰 공급해 오곤 했다. 그는 고객들을 대할 때, 시장성도 중요하지만 시대나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장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라벨 업계들의 사정이 어렵지만 탄탄한 양질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벨 인쇄를 하겠다는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라벨인쇄업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김정전 사장은 현재 라벨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dh_print.co.kr 주소: 서울시 중구 쌍림동 173 대화특수빙당

전화: 02-2273-3659 vortm: 02-2277-6940

무궁화스티커인쇄: 한편, 많은 라벨 인쇄업체가 있지만 최근 무궁화스티커인쇄(대표 설진영)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궁화스티커인쇄는 충남도청의 해외마케팅 사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국내 유일의 책자리벨과 이중라벨, 봉인보안 스티커 등으로 해외업체들의 주목을 받으며 기술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일본 수출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무궁화스티커인쇄의 책자리벨은 제품에 별도의 설명서를 투입할 필요없이 하나의 라벨로 표시하게 되어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원자재 절감 및 친환경적 제품으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 용기 등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궁화스티커인쇄의 경우는 빼어난 기획력으로 참신한 제품을 개발한 것이어서 국내 라벨인쇄업체들도 준비하기에 따라서 해외 시장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홈페이지: www.mksticker.com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78-120

전화: 1566-4563 팩스: 041-576-1082

◎ 수입, 국산 혼재한 라벨인쇄기업계

약 20년 전만 해도 국내 라벨인쇄기 시장에서 이렇다 할 국내 라벨인쇄기 생산업체는 없었다. 그러나 점차 국내 라벨인쇄기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시장 점유율 면에서 일본을 비롯한 수입라벨인쇄기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라벨인쇄기라는 이름만 같을 뿐 제작방식, 사용부문이 다른 곳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느 부문을 따질 것도 없이 수입 라벨인쇄기가 장악했던 시장의 적잖은 부분을 국산 라벨인쇄기 제작업체들이 차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생산 초기의 벤치마킹 수준에 비해 급격한 기술력의 향상으로 일차적인 수입 대체는 물론이고 동남아 및 중동지역 등으로의 수출도 활성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연간50대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국내 라벨인쇄기 시장을 벗어나 넓은 세계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주요 라벨인쇄기업체들은 저마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 개성을 갖춘 제품을 내놓고 있다.

◎ 고객 요구에 초점 맞춘 엠테크무역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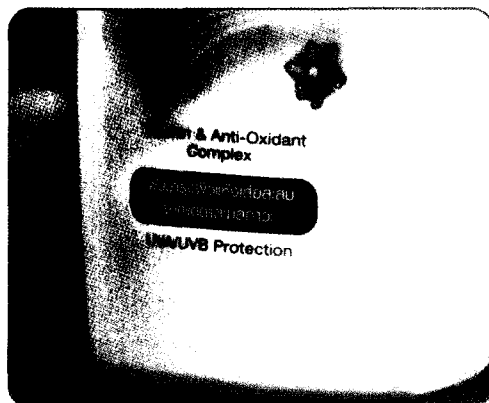
엠테크무역상사(대표 조영민)는 좀 더 특별한 라벨기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하고 있다. 스티커라벨인쇄기, 플렉소라벨인쇄기 및 관련 장비와 부품들을 수출입하는 엠테크무역상사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발맞추어 라벨인쇄산업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읽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고급품질, 안전성, 편의성, 내구성, 안정된 제품가격을 중시하는 시장이 되었고 라벨인쇄의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설비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엠테크무역상사는 고객 입맛에 맞는 설비를 다양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고기를 트레이드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 웹 사이트를 통해 멀티 영업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

엠테크무역상사의 주력제품의 하나인 ManiA-300과 330시리즈, 특히 ManiA-300은 원단 좌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웹가이드(EPC)와 텐션콘트롤러 및 파우더클러치(원단기), 파우더 브레이크(리와인더기)가 장착돼 있어 오퍼레이터의 편리성과 뛰어난 인쇄품질 및 생산성에 중점을 둔 우수한 기계다. Jetrion 4000/4830은 인쇄한 다음, 별도 코팅을 하지 않고 바로 납품할 수 있는 UV잉크시스템으로 작업의 간편화, 주문형 인쇄 등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로터리 인쇄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홈페이지: www.labelpress.co.k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58 성수빌딩 14호
전화: 02-461-6857 팩스: 02-461-6859

◎ 로터리 인쇄기, 평압라벨인쇄기 수출하는 방성기계

방성기계(대표 장완섭)는 주력 제품인 로터리 인쇄기 Art Line300 및 BSR30과 평압라벨인쇄기에 대한 활발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방성기계는 간헐식 로터리 라벨 인쇄기(Intermittent Label Printing Machine)와 평압식 라벨 인쇄기를 전문으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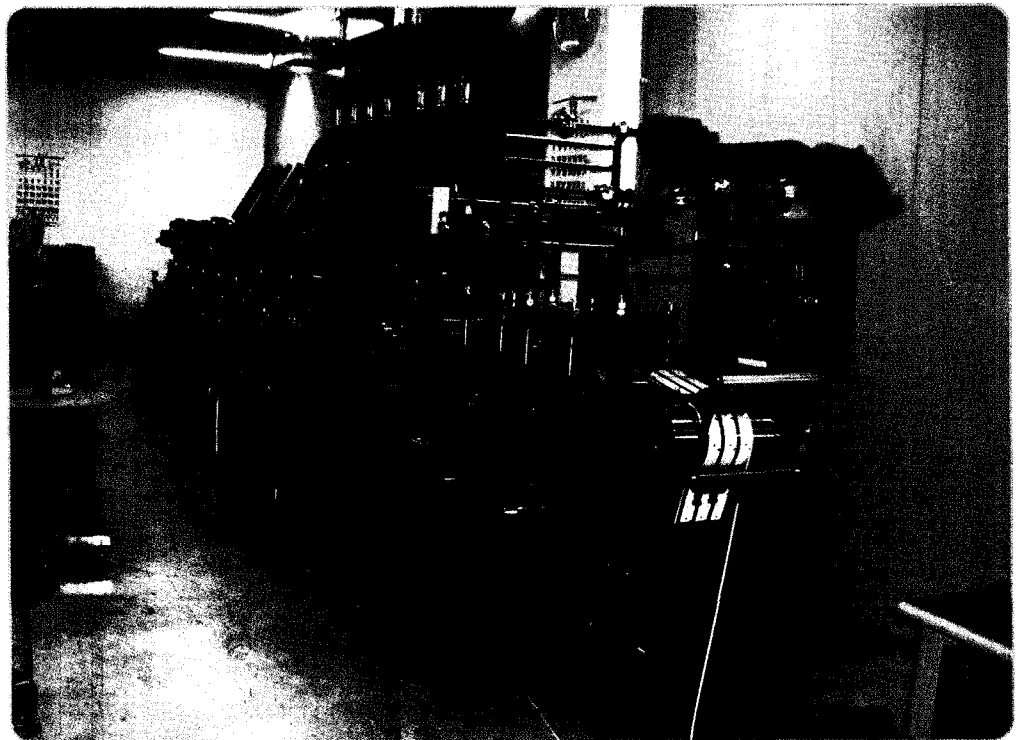
▲ 매출 향상 효과를 가져온 투명라벨

작하고 있으며 1993년 창업 이래 로터리 라벨 인쇄기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다.

방성기계의 라벨 인쇄기는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수정하고자 하는 피드사이즈에 맞춰 수치를 입력하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 운영이 이루어진다. 서보모터 구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성기계는 모든 부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구하고, 생산되는 라벨 인쇄기를 완벽한 도면을 통해 표준화, 규격화된 부품으로 제품의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bangsung.co.kr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26-7

전화: 031-573-4346 팩스: 031-573-6358



▲ 라벨 인쇄기 시장에서 최근 수년동안 성장세를 보인 국산 라벨인쇄기 업체들

◎ 순수 국내기술력 돋보이는 해동기계

해동기계(대표 조길배)는 설계, 제작, 시공, 판매 등 어느 분야에도 국산 기술력이 배제된 곳이 없는 순수 국산임을 자랑한다. 해동기계는 철저한 기술개발을 자랑하며 자사의 라벨인쇄기(HD-4530)에 소비자 기호와 인쇄 시장 흐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소량 다품종'을 그대로 반영했다. 전·후면 동시 다발적인 인쇄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파생되는 효과는 원가절감과 시간, 비용절감으로 나타난다. 인쇄부에 반복 작업도 가능하고 품질의 다색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금형 장착부위 구동장치를 회전하는 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하여 편리하고 견고하며 고장률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원단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형·규격화를 이뤄 국내 실정을 잘 아는 국내기업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라벨자동인쇄기로 이름 일린 태경하이테크

태경하이테크(대표 최유해)은 이래 자동스티커 인쇄기 산업에서 기술개발과 도전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회사이다.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스티커 인쇄기를 국내 및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계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기능과 성능 및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태경하이테크는 홍콩과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에 완제품의 라벨인쇄기를 공급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라벨자동인쇄기(TK-4530LMPH, TK-4025LMPH), 라벨자동튐스기(TK-3232LM)등을 제품 설계에서 주물, 조립, 제작, 운반까지 철저한 업무 분담을 통해 생산, 공급하고 있다. 특히 설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오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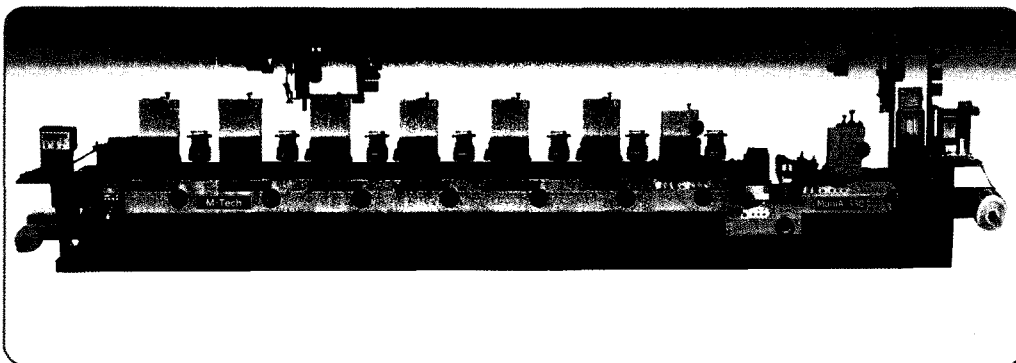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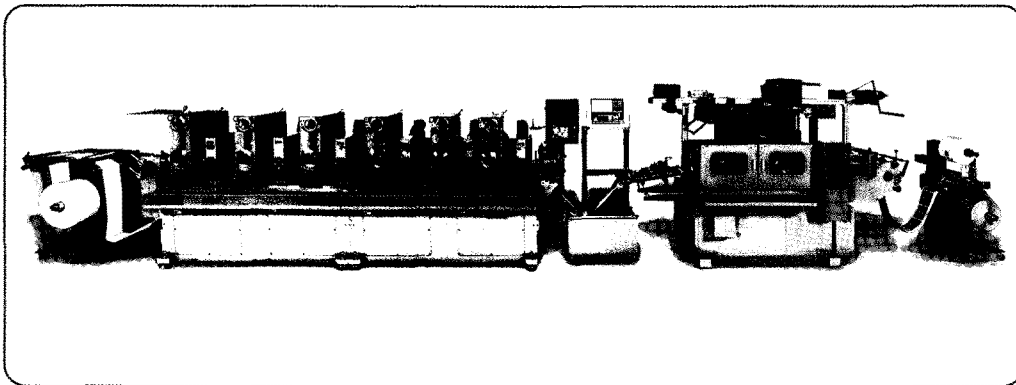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taekyoung.com 주소: 경기도 고양시 초월읍 대쌍행리 36-6

전화: 031-768-8115~6 팩스: 031-768-8144

◎ 디지털 라벨인쇄기 CX1200 공급하는 마이크로큐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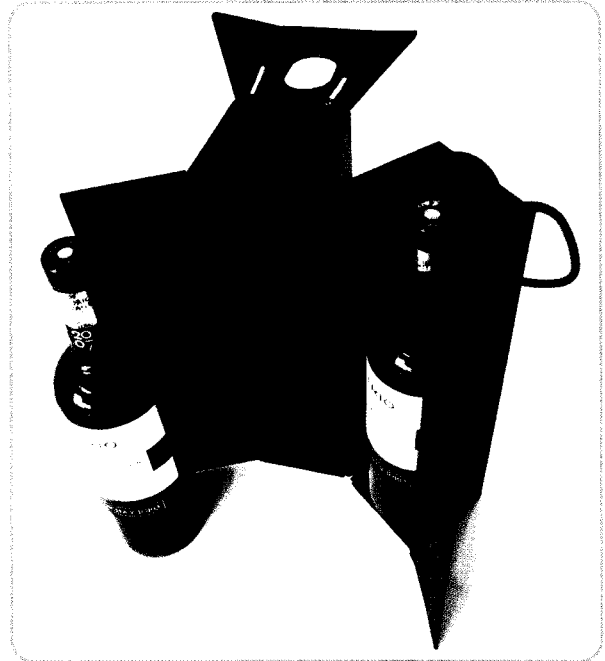
마이크로큐닉스(대표 이병열)는 풀 컬러 디지털 라벨인쇄기 CX1200를 공급하고 있다. 마이크로큐닉스가 공급하는 CX1200은 세계적 라벨 인쇄기 전문 업체인 PRIMERA의 장비이며 풀 컬러 디지털 라벨 인쇄기여서 2400dpi의 고해상도를 갖고 있다. 또한 분당 5미터의 빠른 인쇄 속도와 윈도우 기반의 편리한 작업이 가능한 최신 장비이다.

마이크로큐닉스는 CX1200을 디지털 후가공기 FX1200과 함께 사용하면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고 소개하고 있다. CX1200은 주로 라벨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인쇄사 및 자체적인 물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X1200은 윈도우 기반의 PT프린트,



▲ 라벨 인쇄기도 첨단화, 자동화가 진전되고 있다.

RIP소프트웨어, CMYK토너카트리리지, 381m메트 피니시 라벨 소재, 언와인드 및 리와인드 스테이션, 인쇄 엔진과 자동 장력 조절 스테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홈페이지: www.microqnix.com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6 백산디지털밸리2 8층
 전화: 02-2113-0027
 팩스: 02-2113-2477



▲ 고급패키지에 라벨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 한국형 라벨인쇄기 제작하는 서울정기

서울정기(대표 전영우)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전력을 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정기는 일체 라벨인쇄기에 들어가는 실린더와 마그네틱 실린더

도 국산화해 보급할 정도로 사용업체들로부터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실린더 이외의 부품들도 점차 국산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정기는 정보수집이나 정보교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국내외 전시회도 참관해 정보와 기술을 수집해 이를 해외 전시회 참가와 본격적인 수출로 연결해 라벨인쇄기 전문업체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성장 가능성 크지만 기술력 뒷받침 되어

소재 부문과 장비 부문 및 라벨인쇄업체 분야별로 보더라도 라벨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한 분야라는 전망이 우세한 형편이다. 그러나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 없듯이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성장의 과실을 거둘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라벨인쇄업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소재 부문 국산업체들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품질향상과 신소재 개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장비 부문은 최근 수년간 환율의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면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린 것이 사실이지만 환율의 서서히 하향안정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고 장비의 특성상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쉴 사이없이 부지런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부문의 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라벨부문의 전망은 전체적으로 밝은 편으로 보고 미래를 꿈꾸어도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